구미래의 새롭게 만나는 불교의례 ❸ 지방(紙榜)과 지의(紙衣)



▶한줄요약
지방 접기는 조상 신위를 소중히 여기는 인간 심성의 발로며 한국인의 창조성이 반영된 종이접기의 원초적 모습을 유추할 수 있다. 한국 불교의례에서도 지의가 관욕에서 널리 사용됐는데 명부의 옷이 해탈복으로 바뀌는 '화의'의 과정을 중요하게 의미화했다.

종이 접어 신성한 세계 구상화하다

〈具象化〉

존재를 나타내는 신위

망혼이나 초월적 존재를 대상으로 의례를 치를 때면 신위(神位)를 모시게 된다. '신적 존재(神)의 자리(位)'라는 단어의 뜻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신위란 모시고자 하는 존재가 의지할 곳이자 의례 대상을 밝히는 상징물이다. 이를 제단에 모시거나 활용하여 대상의 강림을 상정하는 가운데 의례를 치르는 것이다.

신위는 대상의 이름을 써서 밝히는 유형, 상징적 물체[神體]로 존재를 나타내는 유형이 있다. 이름을 밝히는 신위가 주로 신주 · 위패 · 지방처럼 상 · 제례에 등장하는 인격신이라면, 특정 물체로써 존재를 나타내는 유형은 민간신앙과 불교 · 유교 의례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민간신앙의 성주단지 · 조상종이 · 귀신당세기, 불교 천도재의 지의와 넋전, 유교 상례의 혼백(魂帛) 등이 모두 이에 속한다.

신위의 상징물로 나무 · 종이 · 천 · 곡식 등이 다양하게 사용되나, 가장 보편적한 것은 종이다. 명칭을 쓰기 위한 용도에서부터, 백지를 접거나 오려서 신위로 삼는 양상이 광범위하게 전승되고 있다. 백지는 밝고 정결한 길지(吉紙)의 신성성을 지녀, 신적 존재를 나타내는 상징물로 삼기에 더 없이 적합한 소재이다. 신에게 공물(供物)로 길지를 바치는 것도 이러한 백지의 신성성을 취한 것이라 하겠다.

특히 종이가 지닌 물질성은 청해 모신 존재를 돌려보내거나 소망을 전할 때도 인간 보편의 심성에 매우 적합하다. 의례를 위해 조성한 종이 신위를 마지막에 태우면서, 그 연기를 신의 세계인 하늘로 보내는 것이라 여기기 때문이다. 동제(洞祭)를 지내고 나서 집집이 발원을 적은 소원지를 써서 태우는 것 또한 이러한 의미를 담은 행위이다. 나뭇가지에 묶인 한 장의 백지도 예사롭지 않은 종교적 처치이듯이, 백지는 대표적인 의물(儀物)로 우리의 종교적 삶과 함께해왔다.

이러한 두 가지 신위 유형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방'과 '지의'가 주목된다. 지방(紙榜)은 봉사대상의 이름을 적어 텍스트가 중심이 되는 신위라면, 지의(紙衣)는 옷으로써 존재를 상징하는 형상 중심의 신위이다. 두 신위의 공통점은 종이로 조성하되 '오리기'에서 한 단계 발전된 '접기'의 과정을 거쳐 조성한다는 점, 다른 사례에 비해 구체적인 역사기록을 지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종이를 접어 만든 신위는 오랜 세월에 걸쳐 신성한 세계를 구상화해온 인간의 상상력과 사유가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단순함과 간편함이 토대가 되고 있다. 이들 신위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살펴보노라면, 종이로 신위를 만들어 신령한 세계와 교감해온 한국인의 종교적 삶과 문화를 조명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 접기, 감실에 모신 신위 상징

지방은 종이신주 · 약식신주라 부르듯이 신주(神主) 대신 모시는 신위로 통한다. 초기에는 신주 · 위패 · 지방의 개념이 분리되지 않은 채 통합되어 있었고 지금도 혼용되는 개념이다. 신주는 목패인 위패에서 출발했고, 약식으로 모시는 신주가 지방이며, 지방을 써서 목패에 부착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을 유교적 관점에서 '종이신주'라 부르지만, 원론적으로 '종이위패'와 통하는 개념이다.



종이위패를 모시고 지의를 배치한 관욕단(봉원사)



종이로 만든 지방(민간)



종이로 만든 위패(진관사)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후기에 〈주자가례〉가 들어오면서 가묘(사당)의 설립과 신주 사용을 권장하기 시작했다. 조선시대에 접어들면 조상숭배와 효를 중시하는 유교이념에 따라 이러한 관습이 본격적으로 강화되었고, 종이 신주인 지방에 대한 기록도 건국 직후부터 살필 수 있다. 따라서 지방을 쓰기 시작한 시점 또한 유교식 조상제사가 성행한 고려 후기일 것으로 추정된다. 지방을 모시려면 어딘가에 부착해야 하니, 한지에 봉사대상의 명호를 써서 목패나 병풍 등에 붙여 사용했을 것이다.

그러다가 점차 세울 수 있도록 입체적으로 접은 지방을 쓰게 되었는데, 그 모습이 감실 속에 신주 · 위패를 모신 형태를 취하고 있어 놀라움을 준다. 한 장의 한지를 접어 지붕과 받침대를 만들고 양 날개로 여닫이문까지 표현하면, 신위와 감실을 통합한 훌륭한 입체적 지방이 탄생하는 것이다. 이는 세우는 데 목적을 두기보다, 감실에 모신 형태를 취하여 신위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담은 것이라 하겠다.

지붕과 날개와 받침대를 갖춘 입체적 지방 접기는 오늘날에도 사찰과 민가를 중심으로 전승되면서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신위로 주목받고 있다. 종이로 만든 것이기에 유물이 남아있지 않아 그 역사를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힘들지만, 조상제사부터 마을제사까지 지방이 활성화되었던 조선 중기에는 다양한 양상의 지방 접기 또한 발달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신위 상징물로 종이 가장 보편적
신께 공물로 백지 신성성 취한 것
의례서 망자의 옷 상징하는 지의
불교의례 관욕서 널리 사용되기도

지방 접기는 조상의 신위를 소중하게 여기는 인간 심성의 발로이다. 사당이 없는 서민이나, 사당이 있더라도 지손(支孫)으로 제사를 지내는 경우 조상을 섬기는 마음이 지방을 접는 행위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평면의 종이를 목패에 부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신위와 감실을 통합적으로 표현한 데서, 한국인의 창조성이 반영된 종이접기의 원초적 모습을 유추할 수 있다.

지의, 창조적 발상의 의례 상징물

지의는 의례에서 망자 또는 망자의 옷을 상징하여 쓰는 신위이다. 우리나라 불교의례에서는 이른 시기부터 종이로 작게 접어 만든 지의를 사용해왔다. 중국과 일본에서도 죽음의례에서 지의를 사용하지만, 실제 옷과 같은 모양이나 크기로 만든다. '지의'라는 명칭은 동일하지만, 둘의 의미는 매우 다르다. 실제 옷에 기준을 둔 지의는 천으로 만든 옷을 대체하는 의미를 지닌다면, 접어서 만든 지의는 의례적 상징물로 구상화된 특징을 지니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수년 전 조상의례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중국학자가 발표하고 필자가 토론하는 과정에, 직접 종이로 지의를 접어 발표자에게 보여준 적이 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우리가 종이접기로 즐겨 만들었던 바지저고리를 본 적이 없어 신기해하며 그것을 중국으로 가져갔다.

지의는 바지저고리를 작게 접어서 만든다. 정사각형 종이의 네 방향을 접고, 뒤집어서 같은 방식으로 두 차례 더 반복한 다음 접은 부분을 모두 젖혀 반을 접으면 저고리가 완성된다. 바지도 똑같이 진행하여 마지막 접은 부분을 두 곳만 젖히고, 나머지는 접은 부분을 완전히 펼쳐서 양다리를 만든다. 완성된 바지를 저고리에 끼우면 한 벌의 옷이 완성되는 것이다. 알고 나면 쉽지만, 처음 만드는 데는 대단한 창조적 발상이 필요하다.

역사적으로 지의는 영가의 업을 씻어주는 관욕(灌浴)을 행할 때 주로 등장한다. 이처럼 구상화한 상징물로 지의를 만들어 쓴 것은 의례적 상상력에 기반한다. 의례는 보이지 않는 세계와 소통하는 길을 만드는 행위이고, 일상의 방식과 다른 상징적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오늘날에도 대부분 사찰에서는 각종 천도재에서 지의를 빠짐없이 갖추고 관욕을 치른다. 종이로 만들어 쓰는 무구(巫具)가 다양하게 발달한 무속에서도 굿을 할 때 넋전 · 지전 등의 요소로 망자를 나타낼 뿐 작게 접은 지의는 사용하지 않아, 의례에서 지의를 쓰는 경우는 천도재의 관욕이 유일하다.

그 이유는 지의가 망자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옷'을 뜻하는 지물(紙物)이기 때문이다. 존재만을 상징하려면 사람 형상으로 만드는 것이 더 적합하며 구태여 바지 · 저고리로 만들 필요가 없을 것이다. 관욕에서 사용하는 의식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의례에서 상징하는 옷의 의미가 뚜렷이 드러난다.

한국 불교의례의 독자적 가치

'지의'의 존재를 처음 알려주는 의식집은 1661년에 지선(智禪)이 편찬한 〈오종범음집〉이다. 이 의식문에는, 관욕 때 목욕을 마치고 명부 옷이 새 옷으로 변했음을 알리는 '가지화의(加持化衣)' 편에 다음과 같이 주석을 달아놓았다. "가지화의 편을 마치면 대중이 함께 화의진언을 수차 염송하되, 지의를 모두 태울 때까지 한다." 명의가 해탈복으로 변할 때 '화의진언'을 염송하는데, 관욕단에서 지의를 모두 태울 때까지 멈추지 말고 외우라는 내용이다.

이처럼 17세기 우리나라에는 지의가 관욕에서 널리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고려 말인 1342년에 죽암(竹巖)이 편찬한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에도 '가지화의편'이 있고 '명의(冥衣)'라는 용어가 등장하나, 주석이 없어 지의를 사용했는지는 명확히 알 수 없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주목할 점이 있다. 죽암의 〈중례문〉은 중국의 자기(仔夔)가 1150년에 편찬한 〈천지명양수륙의문〉을 참조해 펴낸 것인데, 중국에 없던 '가지화의편'을 〈중례문〉에서 독립된 절차로 편성해놓았다는 사실이다. 중국에서는 업을 씻고 해탈복을 갖추는 것만으로 간략하게 다룬 데 비해, 한국에서는 명부의 옷이 해탈복으로 바뀌는 '화의'의 과정을 중요하게 의미화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지의는 여러 의식집에 꾸준히 등장한다. 이를테면 1713년에 간행된 편자 미상의 〈산보범음집〉에는, 관욕 때 욕실에 갖추어야 할 여러 기물에 대해 주석을 달아놓았다. 지의와 관련해서는 여섯 구를 모시면서, 각각의 지의를 봉투에 넣고 신위 명을 쓰도록 하였다.

이처럼 한국불교가 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관념적 · 밀교적 성격의 관욕이 발달한 셈인데, 이는 불교의례 일반에서도 다르지 않다. 일본에서는 생활불교가 정착되었지만 불교의 역할이 장례에 집중되고 의례는 발달하지 않아, 우리의 수륙재 · 영산재는 그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명부의 옷이 해탈복으로 변하는 가지화의편을 만들고, 한지로 지의와 지방을 접어 상징물로 쓴 선인들의 창조성이 참으로 자랑스럽다. 4차혁명을 외치며 바쁘게 돌아가는 오늘날, 의례는 비효율적 영역으로 밀려나 사회 전반에서 그 힘을 잃어가고 있다. 그런데 불교의례는 점차 그 가치를 되찾아가고 있으니 불교가 전통문화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불교민속연구소 소장〉

영남범패학인모집

본 원에서는 영남범패의 전승과 보존을 위하여 뜻을 같이 할 제 17기 학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동참바랍니다.

- 아 래 -

- 개강일시 : 2023년 3월 2일 (목요일) 오후 3시
- 교육장소 : 달전사 (함안군 칠원읍 유원길 778)
- 수 강 일 :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 6시
- 교육기간 : 6개월 과정
- 교육내용 : 1. 사십구재의식 이론 및 실기
  2. 작법무(바라무·착복무)
  3. 수륙재의식(매주 월요일 참석가능)
- 수강자격 : 삭발염의한 출가승려에 한 함
- 수 강 료 : 월 10만원 (교재비 별도)
- 준 비 물 : 필기도구 및 녹음기
- 강 사 : 원명 (불교의례전공)
- 문의전화 : 010-3867-8419
- 참 고 : 인터넷과 유튜브에서 '달전사'를 검색해보세요.

사)대한불교불음원
원장 원 명 합장

(사)한국불교 금강선원 학인모집

디지털 불교통신대학
대학장 서무선
기존의 통신대학 과정을 급변하는 시대에 맞춰 핸드폰, PC에서 강의를 시청할 수 있고 책을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언제, 어디서나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보강하였습니다.
■ 원서교부 : 2023년 1월 부터
■ 교육과정 : 1학기 ~ 4학기(각과정 6개월/2년후 졸업)
■ 개 강 : 2023년 3월 16일

나란다삼장불교대학
강원 교육
학 장 성 덕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심자를 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 운영 행정지원
◉ 출가 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완비
■ 원서교부 : 2023년 1월 부터
■ 개 강 : 2023년 3월 2일
■ 교 수 진 : 활안 한정섭스님, 서무선 박사님 외

불교예술대학
범패 · 작법무
교 수 해 사
불교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하는 불교예술대학에서는 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이수자 해사스님을 교수로 초빙하여 불교예술의 진수를 배울 수 있습니다. 불교예술의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자 하는 학인들의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 강의내용 : 상주권공
■ 수업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 6시
■ 개 강 : 2023년 3월 7일 오후 3시

서울시 동대문구 왕산로 43가길 6 | www.kumgangnet.com | 금강선원 사무국 02)969-2410, 969-4981